

# 겨울방학을 기다리는 교사?

글 김윤권 이사벨중학교

작년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짧지 않은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즐거운 겨울방학을 기다린 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히 방학이 좋아서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어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날씨가 너무 추워 수업을 하기 어려워서도 아니었다. 교사들이 겨울방학을 기다리는 건 학교 밖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학교교육은 성적 지상주의라는 절대 신화의 영향 속에 놓여 있다. 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무리 가치 있더라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라는 또 다른 주제와 연결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더해져 인문계 고등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해 보인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장 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언론의 기사는 그래서 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 없이 새롭게 다가온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육감들은 새해의 주요 사업으로 학력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학력신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들의 평가 때문일 것이다. 직선제로 바뀐 이후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뒤섞인 복잡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자녀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심리가 깊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리없는 교육감들은 성과급 차별 지원 운운하며 일선 학교에 학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는 상급 기관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은 학기말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출석에서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다. 중3 학생들 역시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는 학교 수업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부 학년의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전 학년에 퍼져 12월 초나 중순에 치뤄지는 기말고사 이후 겨울방학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은 학교 교사들에게 정말 곤혹스러운 시간이 되고 있다.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학생들은 자신이 배울 내용이 남아있음에도 수업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거나 교사들에게 대놓고 시청각 자료를 보여 달라고 떼를 쓴다. 이러한 현상을 알고 있는 교육 행정기관도 갖가지 아이디어를 모아 학교 현장에 제공하지만 현장감의 결여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의 현장과 교육 행정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으로 더 실패감을 맛보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교사들은 겨울방학을 학생들보다 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준 새 학기 문제집을 풀고 있는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학교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12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행사는 새 학년도 학생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새 학년에 올라가서 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학교들의 경우,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서 학생회장, 부회장선거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접근이다. 학생들이 성인된 이후에 만나게 되는 각종 선거와 비교하여 학교에서의 선거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많은 학교에서의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교육적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대학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는 나름 관심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벗어난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는 입후보자들이 없어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한편 초등학교에서의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들의 선거가 아니라는 말은 옛 이야기처럼 들린다. 물론 초등학교생들의 역량을 생각할 때,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아무리 리더십이 좋고 교우 관계가 원만한 학생이라도 쉽게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이다.

외부적인 분위기 못지않게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많이 변한 것 같다.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이 학생회장을 할 경우,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될 것을 염려하여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약한 부회장 후보로 나서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또한 자신의 런닝메이트를 정할 때, 어떻게 학생들을 잘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손쉽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한다고 한다. 심지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처음에 제안한 런닝메이트를 일방적으로 깨고 다른 런닝메이트를 구해 선거에 임한다고 하니 그 수준이 가히 기성 정치권의 모습과 유사하다. 순수해야 하는 학생들의 사회, 정치 학습에 기성 정치권의 나쁜 모습들이 그대로 유입되는 것 같아 슬픈 마음이 든다. 학생들에게 아무리 함께 하는 정치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과 희생을 말해도 다른 가치관을 가진 학부모들과 사회의 간섭은 그들을 선거 기간 동안 다른 사람처럼 느끼게 한다. 이러한 학생회장 선거 역시 교사들이 겨울방학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일 년의 학교교육활동을 마무리하는 연말, 기독교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행복한 추억들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일까? 아니면 돌아보고 싶지 않은 아픈 시간들로 인해 한사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모습일까? 사실 이러한 학기말의 상황은 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왜곡된 모습에서 자유로운 기독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힘든 상황조차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기독교사로 부르셨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아픈 상황조차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먼저 희생함으로써 학생들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하게 된다. 새해를 기대할 수 있음은 지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 겨울방학을 기다려보자..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7-8)